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A] 이른바 사은유(死隱喻)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B]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하여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休止)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40. 위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1점]

- ①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가?
- ②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언어 표현이 사고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④ 인간의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언어 구조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41. [A]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입방아를 찧다.
-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42. [B]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명사 ‘너, 저’에 ‘-회’가 붙어 ‘너회, 저회’가 만들어진다.
- ② 양수사 ‘셋, 넷’에 ‘-째’가 붙어 서수사 ‘셋째, 넷째’가 만들어진다.
- ③ 예사말 ‘사장, 과장’에 ‘-님’이 붙어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진다.
- ④ 동사 어간 ‘오-, 가-’에 ‘-라, -자’가 붙어 활용형 ‘오라, 가자’가 만들어진다.
- ⑤ 능동사 ‘보다, 막다’에 ‘-이-, -히-’가 붙어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가 만들어진다.

43.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④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서로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07년 3월 고3 34~37번

【34 - 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언어의 형성은 그 언어 사용자들의 역사, 문화와 함께 진행됐다. 그런데 언어권마다 세상을 분절(分節)하고 표상(表象)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차이가 세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여 언어화하는지 살펴보자. 인간의 언어는 물리적인 세상 그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인지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그림> 두면의 잔

<그림>에서 검은색을 배경으로 흰색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상을 생각해 보면 잔으로 보인다. 반대로 흰색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검은색에 초점을 ㉠ 맞추면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로도 볼 수 있다.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인지 과정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추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사람들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변 상황이나 세상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사물이나 현상을 주관적으로 수용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인간이 그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모습, 소리, 냄새 등등의 물리적인 실제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이것을 기호화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눈은 천만 가지의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영어에서는 4천 가지 색 이하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본 색깔을 11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색깔을 11가지로 ㉡ 분절한 것이다.

한편, 빨간색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빨간색이라는 범주\* 속에서 하나의 빨간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똑같은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신호등의 빨간색을 보고 운전기사는 차를 세운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범주화함으로써 그들의 주위 환경에 대처하는 것은 생존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이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면 이러한 소리의 질을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고 단지 위험의 표시로 범주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낮선 문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명확하게 구분 짓는 범주에 대하여 그 문화 속의 사람들은 그러한 범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쉽게 묘사할 줄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감지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쌀과 관련하여 쌀, 밥, 모, 벼, 누, 죽, 누룽지 등의 여러 개의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에스키모인은 '눈[雪]'을 200여 개의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환경, 즉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별개의 사회에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된 개념 형태의 체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언어는 그 자체의 범주와 또 그 범주를 나타내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는 주관적인 세상을 제 나름대로 분절하고 추상(抽象)하고 표상(表象)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 속에 저장된 세상을 이해한다는 뜻이 된다.

\* 범주 :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3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대상을 규명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기 있는 소설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썼을 거야.
- ② 한시는 조상의 풍류를 담고 있는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야.
- ③ 훌륭한 번역은 외국의 문화가 생소하지 않도록 의역하는 것이군.
- ④ 신문 기사는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반영해야 하겠군.
- ⑤ 재미있는 기행문은 여정에 따라 풍부한 문화를 담고 있어야 하는군.

36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젓가락의 짚을 맞추어 밥상에 올려놓았다.
- ②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 ③ 그의 가족은 늘 같은 안정점에서 안정을 맞춘다.
- ④ 컴퓨터를 조심해서 분해한 다음, 본래대로 맞추어 보아라.
- ⑤ 어머니는 가족 중, 아버지의 입맛에 맞추어 음식을 하신다.

37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계 : 도, 레, 미, 파, 솔, 라, 시
- ② 원소 :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염소
- ③ 사상가 : 노자, 맹자, 순자, 장자, 묵자
- ④ 도형 :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 ⑤ 구기 : 탁구, 정구, 야구, 축구, 배구, 농구

## ◆ 07년 3월 고2 36~39번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설명하는 방향이 다르다. 의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지시설(指示說)과 개념설(概念說)이 있다.

먼저 지시설은 말소리가 지시하는 대상이 바로 언어의 의미라는 견해이다. 예컨대 ‘나무’라는 단어의 경우 [나무]라는 말소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무’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깨비, 용, 견우, 직녀’처럼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은/는, 에, 에게’처럼 문법적 기능만 가진 말들도 있으며, ‘사랑, 평화, 추리’처럼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시설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는 지시 대상 대신에 ‘개념’을 의미로 보는 ㉠ 개념설이다. 우리는 실재하는 수많은 나무들의 공통점을 뽑아 머릿속에 나무라는 심리적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심리적 영상을 흔히 ‘개념’이라고 부른다. 그 개념이 바로 ‘의미’이고, 이를 말소리로 표현한 것이 ‘기호’이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체가 지시물이고, 그것들로부터 직접 공통점을 뽑아내 추상화한 개념이 곧 의미이며, 이를 나타내는 말소리(=기호)가 [나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무]라는 말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곧바로 지시물인 나무의 실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개념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개념이며, 지시물은 머릿속의 개념을 통하여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의 유형에는 먼저 개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다. 개념적 의미는 어떤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것은 문맥적 쓰임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흔히 사전적 의미라고도 한다. 한편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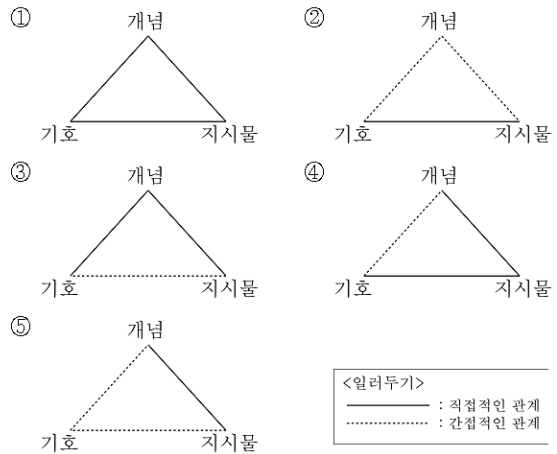
의미의 유형에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및 반사적 의미도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들을 전달할 때 이를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선택한 단어의 종류나 말투, 그리고 글의 문체 등에 의해서 전달된다. 또 말을 할 때 심리적 상태나 상대에 대한 공손함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어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를 정서적 의미라고 한다. 똑같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더라도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어조 등이 달라지는데, 대개의 경우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주는 느낌, 즉 정서적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한편 ㉡ 반사적 의미는 ‘아빠’와 ‘부친’처럼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물 이상의 표현에서 어감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문어진’이라는 사람 이름처럼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너진]으로 발음되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언어의 중심적 기능이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므로 의미의 개념과 유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의미에 맞게 ㉢ 가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6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에는 구체적 지시 대상이 없는 말도 있다.
- ② 언어의 의미는 유동적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한다.
- ③ 어조를 통해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개념은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 ⑤ 단어의 의미는 문맥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

37 ㉠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삽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8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여성’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끔찍하다, 자상하다’ 등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 ㉡ 예전에 ‘천연두’는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손님, 마마’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 ㉢ ‘잘 한다!’는 말은 억양에 따라 칭찬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 ㉣ ‘배신자(裨信子)’라는 이름은 그 발음 때문에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남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다.

- ① a, b                      ② a, c                      ③ b, c
- ④ b, d                      ⑤ c, d

3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를 볼 수가 없었다.
- ② 그녀는 불량품을 가려서 버리는 일을 했다.
- ③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한다.
- ④ 아버지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 ⑤ 유난히 낮을 가리는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 ◆ 06년 4월 고3 57~60번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의 소리나 형태는 그 수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 그 수가 무한정이어서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의 형태나 의미가 서로 같고 다른 것을 구분하여, 비슷한 것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단어나 문법을 모형으로 하여 단어를 만들거나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학에서는 ‘유추(類推)’라고 하는데, 이를 논리학에서는 어떤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특수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형은,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추는 그 과정이 다양한 언어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추는 언어 변화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음운 변화가 일정한 형태 안에서 음절 구조의 변동에 한정된다면, 유추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고쳐진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형태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음운 변화는 자음과 모음, 모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지만, 유추는 아예 음절을 달리하여 음운을 덧붙이거나 완전히 이동시켜 버리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의 변화는 미시적(微視的)인 언어 변화를, 유추는 보다 거시적(巨視的)인 언어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의 본질은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A] ‘처엄>처음, 일흠>이름, 소곰>소금’과 같이 ‘-음’꼴로 만들어 가거나, ‘호랑>호랑이, 배암>배암이, 남>나비’와 같이 동물의 이름을 ‘-이’꼴로 만들어 가는 예는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처음’, ‘이름’, ‘소금’은 ‘처엄’, ‘일흠’, ‘소곰’에서 각각 끝음절이 ‘-음’으로 바뀌는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름씨(명사)’라는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기억하기 편하게 ‘-음’으로 통일하려는 유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위에 든 동물 이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유추 모형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는 크게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과 계열 관계에 따른 모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암+-이>배암이’와 같은 형태는 통합 관계에 따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배암’ 자리에 ‘호랑’, ‘남’과 같은 다른 단어가 올 때 이들 단어 사이에는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로 보면, 기본 문형은 일종의 글의 모형으로 여기에 알맞은 어휘만 넣으면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과 같이 단일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려는 경향이 짙은 언어나, 음소 문자를 쓰는 언어의 유형은 이러한 유추에 따른 언어 창조가 가장 알맞다.

아무리 일상적인 형태에서 유추된 모형을 따르는 어휘나 문법 형태소일지라도 말을 직접 사용하는 언중(言衆)이 쓰지 않으면 사어(死語)가 되고 만다. 반대로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작가의 말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사어가 되어 버렸던 ㉠ ‘아스라이’가 어느 서정 시인의 시에서 쓰인 뒤로 보편적인 말이 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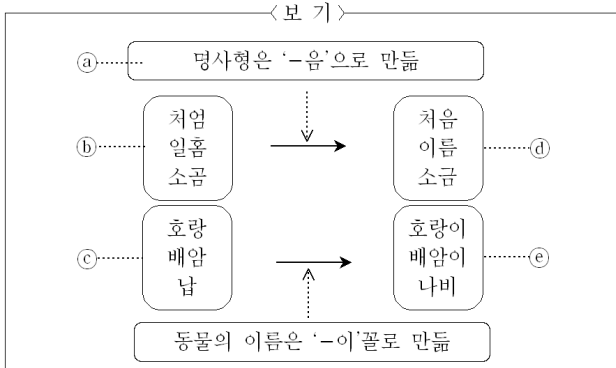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유추의 모형은 절대적이며 엄격한 원리로 작용한다.
- ② 형태 변화 측면에서 보면 유추는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다.
- ③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를 유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일상적인 형태에서 유추된 어휘나 문법 형태소는 사어가 되지 않는다.
- ⑤ 단일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려는 경향이 강한 언어는 유추와 관련성이 적다.

58.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언중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단어를 사용하기 편하게 바꾸려고 한다.
- ② 단어를 개성 있게 바꿔서 사용하려고 한다.
- ③ 단어를 규칙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려고 한다.
- ④ 단어를 기억하기 쉽게 바꿔서 사용하려고 한다.
- ⑤ 단어를 비슷하거나 같게 바꿔서 사용하려고 한다.

59.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추 심리로 작용하는 모형이다.
- ② ㉡는 서로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다.
- ③ ㉣는 서로 통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는 유추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⑤ ㉤는 이전 형태에서 파생된 형태이다.

60. <보기>를 바탕으로 ㉠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고르면?

< 보 기 >

- 아스라하다 : 【형용사】 기억이나 소리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
- 아스라이 : 【부사】 아스라하게
- 아스라 + 이 > 아스라이 : ‘하다’가 붙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단어이다.

- |        |        |        |
|--------|--------|--------|
| ① 가을같이 | ② 감쪽같이 | ③ 너그러이 |
| ④ 다름없이 | ⑤ 다소곳이 |        |

◆ 13-9평 24~26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붕어: 붕어빵=잉어: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을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위 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 ②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외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 ④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5.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수정으로 만든 반지	결혼반지, 금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인삼 가루를 탄 물	바닷물, 설탕물	바닷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 호박떡	호박떡	회갑떡
④	비닐로 만든 옷	겨울옷, 비단옷	겨울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 우유잔	우유잔	돌잔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운탕’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국’에서 유추한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싱건탕’이 ‘맑은탕’보다 국어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③ ‘맑은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 ④ ‘싱건탕’과 ‘맑은탕’은 모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 ⑤ 언중들이 ‘싱건탕’을 짜지 않은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겠군.

◆ 05-9평 39~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 수사학에서는 환유(換喻)를 비유법의 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認知)의 기본적 특성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비유법은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아는 인지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환유적 표현을 무리 없이 이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환유는 인접성(隣接性)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容器)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意味轉移)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러한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훨씬 쉽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유가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거나 ㉢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이다. ‘차를 열다’ 또는 ‘차를 수리하다’의 경우, 이를 차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거나 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제의 사물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면을 자유 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는 전체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의 지칭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유의 지칭 기능은 다분히 상황 의존적이다. ㉣ 동일한 낱말이 환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환유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유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共有)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3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를 나열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통해 통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0. 위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점]

- ① 영화: 환유의 예는 일상 언어 표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 ② 병근: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인지적 융통성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 ③ 철수: ‘아침을 먹다’나 ‘새 얼굴이 등장했다’는 표현에도 환유가 사용됐구나.
- ④ 민정: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환유의 효과가 클 거야.
- ⑤ 명현: 환유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겠군.

41. [A]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점]

- ①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자의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 ②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되어 있다.
- ③ 인간은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 ④ 인간은 언어를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다.
- ⑤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42.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릇’이 ‘용기’라는 뜻과 ‘담긴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② ㉡으로 보면 ‘비둘기’가 ‘평화’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부분’은 대상 전체로 인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특징이어야 한다.
- ④ ㉣의 예로는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를 들 수 있다.
- ⑤ ㉣으로 보면 ‘손’이 상황에 따라 식당에서는 ‘요리사’, 병원에서는 ‘의사’를 지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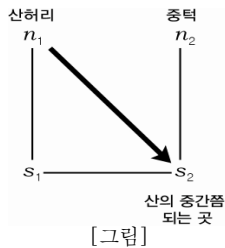


◆ 11년 4월 고3 38~40번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새로 부화된 병아리를 뜻하는 ‘햇병아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인 ‘풋내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면서 햇병아리는 풋내기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와 ‘의미 사이의 근접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의미( $s_1$ )를 가리키는 한 명칭( $n_1$ )이 있고  $s_1$ 과 유사한 다른 의미( $s_2$ )가 있다고 하자.  $s_2$ 의 명칭( $n_2$ )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_1$ 이  $s_2$ 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의 중간쯤 되는 곳( $s_2$ )을 의미하는 ‘중턱( $n_2$ )’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s_2$ 를 가리키기 위해 유사한 의미의 단어 ‘산허리( $n_1$ )’를 사용할 수 있다. 산허리의 의미( $s_1$ )와  $s_2$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그림]처럼 ‘산허리’가  $s_2$ 를 가리키는 명칭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산허리는 기존의 중턱과 함께  $s_2$ 를 가리키게 되어 산허리와 중턱은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때 원래 표현하고자 한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비유의 꼴이 되므로 은유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는 ‘안경다리’처럼 사람의 신체를 무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노루오줌’처럼 동물의 명칭을 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국물’처럼 구체어가 추상적 관념인 ‘이익’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연상 작용이 심리적으로 발생할 때에도 한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변이된다. 이때 명칭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동일한데, 다만 두 의미( $s_1$ ,  $s_2$ )를 연결한 선이 유사성이 아니라 근접성을 나타낸 것이 다르다.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한 명칭 변이는 ㉡ 공간적 관계, ㉢ 시간적 관계, ㉣ 인과적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세자’를 ‘동궁(東宮)’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자의 거처’가 ‘동궁’이라는 공간적 관계의 근접성 때문에 일어난 명칭의 변이이며, 가장 맛있는 ‘새우젓’을 ‘육젓’으로 부르는 것은 ‘육젓’이 ‘음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에서 유래한 변이이다. 그리고 ‘임금의 피난’을 ‘먼지를 덮어쓰다’라는 뜻의 ‘몽진(蒙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면서 먼지를 덮어썼던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38.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음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언어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을 [그림]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n(명칭)	$n_1$ : 햇병아리	$n_2$ : 풋내기
s(의미)	$s_1$ : 새로 부화된 병아리	$s_2$ : 경험이 없는 사람

- ①  $n_1$ 과  $n_2$ 는 유의 관계에 있다.
- ②  $n_1$ 이  $s_2$ 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s_1$ 과  $s_2$  사이에는 공통의 의미 자질이 있다.
- ④  $n_1$ 은 의미에  $s_2$ 를 포함하면서 다의어가 된다.
- ⑤  $n_1$ 이  $s_1$ 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n_2$ 를 만들고 있다.

40. ㉡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 아침(←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진다.
- ㉢. 그는 시의원을 거쳐 여의도(←국회)에 진출했다.
- ㉣. 위험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떨어진다(←두렵다).
- ㉡. 이 시는 4.19(←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 ㉢. 월드컵 개막식이 상암(←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활동으로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를 근원 영역이라고 한다.

- (가)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나) 사랑에 빠지다.

(가)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을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며, (나)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액체에 빠지다’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간의 대응 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은유를 형성하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곧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한편 근원 영역은 낯고 진부한 세계인데 비하여 목표 영역은 새롭고 신선한 특징을 지닌다.

둘째, 은유에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곧 우리는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셋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이라는 여정이 있고,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회로애락과 같은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다. 은유는 복잡한 개념에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19.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은유의 개념은 무엇인가?  
ㄴ. 은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ㄷ. 은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ㄹ. 은유가 지닌 기능은 무엇인가?  
ㅁ. 은유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논쟁은 전투이다.

- ① ‘전투’에 의해 ‘논쟁’이 개념화된 것이다.  
② ‘논쟁’은 목표 영역이고 ‘전투’는 근원 영역이다.  
③ ‘논쟁’과 달리 ‘전투’는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④ ‘전투’는 명확한 경험이지만 ‘논쟁’은 불명확한 경험이다.  
⑤ ‘논쟁’과 ‘전투’의 두 개념 영역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21. 위 글을 읽고 ‘은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대상 간의 외형이 닮아야 가능한 것이다.  
② 어휘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③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④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  
⑤ 문학적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인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목표 영역은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개념화된다.

- (1)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2) ㉠사랑에 빠졌다.

(1)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이라는 개념을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2)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의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인생’과 ‘나그넷길’, ‘사랑’과 ‘물’에서처럼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근원 영역은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또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곧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빠지다’의 경험도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지 그 역은 아니다.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의 여정이 있으며, 그 여정에는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희로애락 등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경우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책략으로, 표현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하고 복잡한 개념에 대하여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은유의 유형에는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적 은유가 있다.

- (3) 논쟁은 전투이다.  
(4) 마음은 그릇이다.

첫째, 구조적 은유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3)에서 ‘논쟁’은 ‘전투’라는 개념에 의해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경험의 두 영역 사이에는 긴밀한 구조적 일치가 존재한다. 곧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는 ‘적군’, 반대를 제기하는 것은 ‘공격’, 주장의 고수는 ‘방어’, 주장의 포기는 ‘항복’, 토론의 결과는 ‘휴전’ ‘승전’ 및 ‘패전’에 해당된다. 이처럼 논쟁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표현들은 ‘전투’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 곧 물체나 내용물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4)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마음은 구체적인 그릇에 의해 파악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음이 크다/작다’, ‘마음을 닦다’와 같은 표현이 생겨난다.

셋째, 방향적 은유는 상호 대립 관계에 있는 방향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를 들면 ‘위-아래’ 방향과 관련하여 ‘봉급이 올라가다/내려가다’, ‘저축률이 높다/낮다’ 등의 표현이 형성된다. 이러한 은유의 방향은 물건을 쌓을 때 양이 많아지면 더미가 높아지며, 잔에다 물을 부으면 수면이 올라가는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24. 위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유는 인지 책략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 ②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 ③ 수사학에서 다루는 은유를 일상 언어활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④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어 구조화할 수 있다.
- ⑤ 은유는 추상적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을 재료로 사용한다.

25. <보기>는 ㉠을 가능하게 한 ㉡의 요소를 찾아본 것이다.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헤어 나오기 어렵다.
- ㉡. 해당 요소에 동화되어 간다.
- ㉢.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여 행동을 만든다.
- ㉣. 결과적으로 대상 전체가 해당 요소에 잠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분위기가 고조되다.
- ㉡ 자존심에 금이 가다.
- ㉢ 오늘 주가는 상승세이다.
- ㉣ 논지의 허점을 공격했다.
- ㉤ 의식 수준이 십 년이나 뒤쳐져 있다.

- ① ‘내 마음은 호수다’는 ㉡의 은유 유형과 동일하다.
- ② ㉡의 근원 영역은 ‘그릇’이며 목표 영역은 ‘자존심’이다.
- ③ ㉢은 구조적 은유로, ‘논쟁은 전투이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은 ‘위-아래’, ㉢은 ‘앞-뒤’와 관련된 일상 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이다.
- ⑤ ㉡, ㉢ 모두 존재론적 은유로,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추상적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일한 장면에 대하여 화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언어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대안적 사고라 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의 ‘해석’은 장면을 개념화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화자의 선택을 가리키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관련한 인지 능력의 발현이다.

그러면 장면이나 상황의 해석에 작용하는 인지 능력 기제인 ‘특정성’과 ‘시점’을 중심으로 장면에 나타나는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자. 한 가지 장면을 다양한 정도의 층위에서 파악하는 ‘특정성’은 주로 계층 관계에서 작용한다. 해당 장면을 상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그 해석이 추상적이며, 하위 층위에 가깝게 파악할 때는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작동한다.

(1) a. 대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

b. 대문 앞에 키가 큰 청년이 서 있다.

(1)은 동일한 장면을 기술한 것인데, 이들 표현은 ‘특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a에서 화자는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은 채 ‘누군가’로 해석하고 있으며, b는 a와 달리 인물의 ‘키가 큰’ 특성에 주목하여 장면을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는 해당 장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성’의 층위를 조절하고 선택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장면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시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시점’이란 화자가 장면의 해석에서 취하는 관점이나 입장을 뜻한다. 화자의 ‘시점’에 관련된 요소로 ‘객관성’과 ‘주관성’은 하나의 장면에서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는 주관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 화자로부터 분리된 장면의 해석을 ‘객관성’이라 하고, 화자가 포함된 장면의 해석을 ‘주관성’이라고 한다.

(2) “너는 엄마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3) “너는 내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니?”

(2)와 (3)은 용돈을 거둬 요구하는 아이에게 화난 어머니가 사용한 표현으로서, ‘엄마’와 ‘나’는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3)은 화자가 묘사하는 장면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주관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으나, (2)는 화자가 자신을 상위층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묘사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객관적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적, 객관적 ‘시점’의 선택에는 화자의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장면의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주체의 ‘해석’을 망라한 것이다.

19. 위 글의 전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언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산물이다.
- ②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이다.
- ③ 언어는 사회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④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ㄴ, ㄷ보다 장면을 상위 층위에서 파악한 것이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인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③ ㄷ은 ㄱ, ㄴ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 ④ ㄴ, ㄷ은 ㄱ보다 화자가 장면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ㄱ~ㄷ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에 해당한다.

21.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생님도 수박이 좋단다.
- ② (아빠가 딸에게) 아빠는 유경이가 정말 예쁘다.
- ③ (딸이 엄마에게) 엄마, 딸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
- ④ (삼촌이 조카에게) 삼촌은 네가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⑤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